

##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정체감과 문화적응유형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ltural Identity, Acculturation Pattern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i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이현주(Hyun Joo Lee)<sup>1)</sup>

강현아(Hyun Ah Kang)<sup>2)</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identity and the psychosocial adjustment levels of children i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by focusing on the effects that different types of cultural identity have on children's overall psychosocial adjustment. The data for this study came from a survey conducted on 122 third to sixth grades children with foreign mothers living in Seoul and Gyeonggi-Do.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children's identification with Korean culture was on average higher than their identification with their mother's culture. Secondly, in terms of identity type, assimilation and separation types appeared to be the most dominant, followed by the integration and marginalization types. Finally, it was found that cultural identiti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children's psychosocial adjustment i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In particular, the level of self-esteem was the highest for children in the integrated group, while it was the lowest for those in the marginalized group.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dentification with the mother's culture is just as important as one's Korean identity when it comes to determining the degree of psycho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i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Key Words** : 문화정체감(cultural identity), 문화적응유형(acculturation pattern), 심리사회적적응(psychosocial adjustment), 국제결혼가정아동(children i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 본 논문은 2010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sup>1)</sup>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석사

<sup>2)</sup>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un-Joo Lee, Department of Child Welfar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52 Hyochangwon-gil, Yonsang-gu, Seoul 140-742, Korea  
E-mail : leehj@sookmyung.ac.kr

## I. 서 론

### 1. 문화정체감 및 문화적응의 의미

1998년에는 전체 혼인건수의 3.2%에 불과하던 국제결혼이 10년 만에 11.0%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08).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국제결혼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들 역시 급속한 증가율을 보여 2006년 25,246명에서 2010년 현재 121,935명으로 지난 5년간 4배 이상 증가하였다(행정안전부, 2010). 더욱이 최근에는 2000년 이후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학령기에 들어서면서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적응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문화권에 모두 영향을 받으면서 두 문화를 동시에 습득해야 하는 국제결혼가정 아동들에게 문화적응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필수적인 사건이며(Lynch, 1992), 그들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박순희, 2009; 이영주, 2007; Casrto, 2003; Mcloyd, 1998).

Berry(1990)는 문화적응이란 한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변화과정으로 정의하고 개인수준의 변화와 집단수준의 변화로 나누었다. 개인수준의 변화는 문화접촉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나 정체성의 변화, 문화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 건강상태 등의 변화 등을 포함하며, 집단수준의 변화는 사회규범이나 제도, 물리적 환경 등의 변화를 의미한다(Berry, 1997).

특히 개인수준의 변화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념은 문화정체감이다(김효정, 2009). 캐나다와 같은 다민족사회에서 문화정체감은 자아정체감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김현실, 2006),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화정체감의 정도가 자존감, 학업 성취 및 학교생활 등 다양한 심리적 안녕 지표와 일관되게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Kail 2007; Phinney & Chavira, 1992). Phinney와 Chavira(1992)는 문화정체감이 높은 청소년은 문화정체감이 낮은 청소년 보다 높은 자존감과 위협적 요소(예 : 인종차별, 편견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Kail(2007)은 문화정체감이 분명할수록 심리적 발달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 2. Berry의 문화적응이론 및 관련 연구

Berry(1997)는 개인이 새로운 문화를 접할 때 '기존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가치를 두는지 여부'와 '새로운 사회문화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문화적응을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sation)의 4가지 문화적응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문화정체성을 강조하였다. 통합형은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류 사회의 문화와도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유형이다. 동화형은 기존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류사회 문화에 대해서만 관계형성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분리형은 기존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은 강하게 유지하지만 새로운 문화는 적응하지 않는 유형이며, 주변화는 기존문화와 새로운 문화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형이다.

Berry의 문화적응이론은 문화적응을 이주자가 두 문화 사이의 어느 적절한 지점을 선택하여 수용국의 문화에 점차 동화되어가는 일방향적 과정으로 보던 시각에서 한 단계 나아가게 했다. 이주자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촉하고 받아들이면서도 본국의 고유한 문화와 관련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차원적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문화적응 연구를 진전시켰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정진경·양계민, 2004). Berry 이전에 초기 연구자들은 문화적응이 주류사회로 동화되어 일방적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주류 문화에 적응해 가는 소수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은 사라진다고 보았다. Golden(1964)은 문화적응은 새로운 사회로의 동화 초기에 생기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Phinney, Cantu와 Kurtz(1997)은 민족정체감이나 민족문화의 보존보다는 주류문화에 대한 동화가 심리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초기의 많은 연구들은 주류사회에 동화 될수록 더 높은 행복감과 자아개념, 내외통제성의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Grossman, Writ, & Davids, 1985; Ward & Rana-Deuba, 1999).

그러나 문화적응이 어느 한 집단에만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소수집단의 기존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효과적인 적응이 아니라 점 점 드러나면서 고유한 문화정체감을 유지하는 것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좀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었다. Ensel과 Lin(1991)은 동일한 민족 간의 사회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는 동질관계가 스트레스 증재나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Cho, Han과 Lee(2005)는 미국사회의 중국조선족 아동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연구한 결과, 민족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아동들이 학교적응, 성취동기, 교사지지 등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을 어느 한쪽의 정체감을 고수하는 것보다 두 민족문화 간 정체감을 통합하거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이주민들의 적응에 좀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erry(1995)에 따르면 자신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근원 문화와 이민국인 주류사회의 문화를 성공적으로 통합한

이민자들이 최상의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하였다. 또한 두 문화를 성공적으로 통합한 사람은 양쪽 모두 유능한 이중문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Sam & Berry, 1995).

Kim(1994)는 미국의 애틀랜타 시에 거주하는 한인 교포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민족 정체감과 자긍심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자신의 민족정체감과 주류사회의 민족정체감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통합적 민족정체감을 가진 참여자가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Thomas와 Choi(2006)의 연구에서는 통합형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분리형과 주변화형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아울러 최근에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이주자들이 본국과 현지의 문화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지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시도되고 있다(Lafromboise, Coleman, & Gerton, 1993).

### 3. 아동의 문화적응 및 문화정체감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국내에서도 최근 다문화사회 문화적응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문화적응과 문화정체감을 다룬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응을 다룬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결혼이민자나 외국인노동자처럼 성인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권복순·차보현, 2007; 김효정, 2009; 박주희·정진경, 2007; 채정민·김종남, 2004),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이주노동자 자녀와(노충래·홍진주, 2007) 탈북청소년(금명자·권혜수·이희우, 2004)을 대상으로 한 몇몇 소수 연구가 있을 뿐이다. 또한 문화정체감에 대

한 국내연구들은 주로 정체감 형성의 어려움이나 부적응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거나(금명자·이영선·김수리, 손재환·이현숙·김민정, 2006; 오성배, 2005; 이소희·최운선, 2008; 정현영, 2006), 국제결혼가정 자녀 연구에서 문화정체감 문제를 언급하더라도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인식,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정체감 형성(김민정, 2008) 등 특정한 정체감의 ‘발달’이나 ‘획득’을 설명하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노충래와 홍진주의 연구(2006)는 국내 거주하는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민족문화정체감, 한국문화에 대한 태도, 심리사회적 적응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한국문화정체감이 높을수록 몽골문화정체감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통합적 민족정체감과 유사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두 문화정체감 수준을 각각 살펴보고 이 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데 그쳤을 뿐 구체적으로 이 두 문화정체감을 어떻게 통합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못하였으며, 문화정체감과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금명자 외(2004)는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Berry의 문화적응이론을 이용하여 그들의 문화적응유형과 문화정체감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문화정체감과 우울, 불안 등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탈북청소년들의 문화정체감 수준과 관계없이 대부분 높은 우울, 불안상태를 보였으며, 그중에서도 북한 문화정체감을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우울과 불안 수준이 동시에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문화정체감 수준이 높으면 부정적인 정서는 낮은 수준일 것이라는 일반적 가설과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연구자들은 연구에 참여한 탈북청소년의 남한체류기간이 2년 안팎으로 짧기 때문에 문화정체감이

정서적 안정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김민정(2008)은 국제결혼가정 아동을 심층 면접하여 그들이 자신을 어떤 인종 및 문화에 범주화 시키는지에 따라 그 유형을 크게 한국인 유형과, 경계인 유형, 갈등형으로 구분하였다. 한국인 유형에 속한 아동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정체화하는 경우와 자신이 한국인이어야 한다는 강박을 띠는 경우를 의미한다. 경계인 유형에 속하는 아동은 부모 양쪽으로부터 이중적 소속감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이중문화에 대한 강점을 자랑스러워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갈등형의 아동은 외국인 부모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가정적인 환경으로 인해 부모 양쪽의 소속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하였으며 외국인 부모에 대해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김민정(2008)은 이러한 아동들의 정체감 유형은 복잡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차적 시도이며, 성장하면서 또 환경이 변화하면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아동들은 자신의 이중적 소속감을 알고 있으며 자신을 두 정체감의 연속선상에 자리매김하는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범주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며 환경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국내 기존 연구들은 아동들의 적응 어려움이나 부적응 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거나 문화정체감에 대한 인식수준을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다. 더군다나 이 연구들은 아동이 두 문화 중 어느 한 문화를 선택하는 것이 그들의 발달이나 적응에 적절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제결혼가정 아동이 두 문화에 대

한 각각의 정체감을 균형 있게 통합하는 것이 발달에 더 적절하다는 Berry의 문화적응이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결혼가정 아동들의 한국문화정체감과 외국인 어머니 나라에 대한 모국문화정체감을 각각 살펴보고, 더 나아가 국제결혼가정 아동이 두 문화정체감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들의 문화적응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라서 그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제결혼가정 아동이 두 문화정체감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정체감 (한국문화정체감, 모국문화정체감) 수준과 문화적응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어머니가 외국인인 국제결혼가정의 아동이다. 설문지 문항의 이해가 가능한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그 연령을 제한하였다. 통계청(2008)의 인구통계연보(혼인, 이혼

편)에 의하면 2008년 현재 국내 국제결혼가정의 77.8%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임을 고려하여 국제결혼가정 중 어머니가 외국인이고 아버지가 한국인인 가정을 선정하였다.<sup>1)</sup> 또한 서울, 경기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행정안전부(2009)의 「외국인주민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국제결혼가정 아동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서울, 경기 지역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sup>2)</sup>

연구결과와 일반화를 위해서는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확률표집의 방법을 취해야 하나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만으로는 초등학교 3~6학년에 해당하는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점과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인하여 임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문화아동이 10명 이상 재학 중인 다문화정책연구학교 리스트를 받아 학교장과 연락 후 조사를 수락한 서울지역 3개교와 경기도지역 3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연구 참여 아동을 확보하기 위해 다문화아동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제결혼가정모임 등을 접촉하여 추가로 아동을 표집하였다.

1) 2008년 현재 전체 국제결혼건수는 36,204건이며, 이 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으로 이루어진 국제결혼은 28,163건(77.8%)이다(통계청, 2009).

2) 행정안전부는 2006년부터 매년 외국인주민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2009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외국인주민실태조사에 의하면 2009년 현재, 만 18세 이하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88,485명이며 이 중 44.3%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가정 아동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도로는 경기도 27.5%(24,300명), 서울 16.8%(14,897명) 다음으로 경남 9.0%(8,003명), 전남 8.2%(7,264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 2. 측정도구

### 1) 문화정체감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한국문화정체감과 모국 문화정체감을 측정하고 문화적응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척도는 국내에서는 개발된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Ahn(1999)이 개발하고 금명자, 권혜수와 이희우(2004)가 번안·수정한 민족적 정체성 척도(KAEIS)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표 1). Ahn이 개발한 민족적 정체성 척도(KAEIS)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한민족·한국문화정체감 수준과 미국인·미국문화에 대한 정체감을 확인하고자 개발된 것으로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두 민족문화정체감을 형성하고 있는 대상들의 각각의 문화정체감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이를 국내에서는 금명자 외(2004)가 한국에서 거주하는 9세 이상 20세 미만의 탈북청소년의 문화정체감 수준을 파악하고 문화적응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sup>3)</sup> 비록 금명자 외의 연구가 탈북청소년이 대상이기는 하나 미국사회 문화를 반영하여 개발된 Ahn의 원척도를 한국에서 생활하는 연구대상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도록 번역

3) 금명자 외(2004)는 Ahn(1999)이 개발한 KAEIS 원척도의 50문항을 Korea나 Korean은 ‘북한’으로 America나 American은 ‘남한’으로 번역하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남한문화정체감 20문항, 북한문화정체감 18문항으로 최종적으로 38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또한 남한문화정체감과 북한문화정체감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유형을 4개로 분류하였다. 북한문화정체감 점수와 남한문화정체감 점수 모두가 집단평균보다 높으면 통합유형, 북한문화정체감 점수는 평균보다 높지만 남한문화정체감 점수는 평균보다 낮으면 분리, 북한문화정체감 점수는 평균보다 낮지만 남한문화정체감 점수는 평균보다 높으면 동화, 두 문화에 대한 정체감 점수 모두 집단 평균보다 낮으면 주변화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하여 전문가들을 통해 내적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아동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척도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금명자 외(2004)의 연구에서 탈북청소년에게는 북한문화가 기존문화이고 이주한 남한의 문화가 새로운 문화인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난 국제결혼가정 아동에게 한국문화는 기존문화이지만 소수 민족 어머니의 문화는 새롭게 접하는 문화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금명자 외의 연구 문항 중 북한을 ‘한국’으로 남한을 ‘모국’으로 변경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문화정체감과 모국문화정체감 문항을 재구성 하였다. ‘한국의 전통이 매우 자랑스럽다’,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노래를 즐겨 듣는다’ 등과 같이 한국문화와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한국문화정체감 13문항과 ‘엄마나라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즐겁다’, ‘엄마 나라 문화가 좋다고 생각한다’, ‘엄마나라 말을 계속 쓰려고 노력할 것이다’ 등과 같이 어머니 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국문화정체감 19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이후 금명자 외(2004) 연구와 같이 각각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문화적응유형을 네 가지(통합, 분리, 동화, 주변화)로 구분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특정 문화의 정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94, 하위요인별로 모국문화정체감은 .948, 한국문화정체감은 .898로 나타났다.

### 2) 심리사회적 적응

본 연구에서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적응적인 측면인 자아존중감과 부적응적 측면인 위축, 우울·불안의 내재화문제를 통해 살펴보았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고 내재화문제

〈표 1〉 원칙도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연구자	연구대상	기존문화 정체감(문항수)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정체감(문항수)
Ahn(1990)	미국거주 한인 청소년	한국문화정체감(25)	미국문화정체감(25)
금명자 외(2004)	한국거주 탈북청소년	북한문화정체감(18)	남한문화정체감(20)
본 연구	한국출생 국제결혼가정 아동	한국문화정체감(13)	모국문화정체감(19)

점수가 낮을수록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Rosenberg (1965)가 개발하고 Sim(1994)이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이 느끼는 자기가치, 자신감, 자기만족, 자기존중, 자기 비난에 대한 느낌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문항 5개와 부정적 문항 5개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 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 범위는 10점~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위축과 우울·불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Achenbach(1991)의 청소년 심리정서적 문제평가척도(YSR)를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와 하은혜(1997)가 한국식으로 번안 표준화한 청소년용 자기행동평가척도(K-YSR : Korean Youth Self Report)중 내재화문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문제 척도 중 방화나 가출, 도벽, 타인에게 상해를 입힘 등 일부문항이 초등학교 아동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제결혼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신지혜, 2008; 최선화, 2009)에서 외현화문제보다는 위축이나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내재화문제 척도 중

위축(7문항), 우울·불안(14문항)의 총 21 문항만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경기도 안산시의 이주민지원센터 1곳과 경기도 시흥시의 지역아동센터 1곳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국제결혼가정 아동 11명을 대상으로 각각 두 번에 걸쳐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 응답자의 빈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응답이 없는 문항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서울지역 3개교와 경기도지역 3개 초등학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8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와 함께 다문화아동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제결혼가정모임을 방문하여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에게 면접조사 및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과후교실, 사회복지관,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설문지 52부를 추가로 회수하여 전체 회수된 설문지는 총 139부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대상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 17부를 제외한 122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문화정체감과 모국문화정체감 각각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문항을 추출하고 요인을 구분하기 위해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 직교회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다문화적 특성에 따라 문화정체감과 심리사회적 적응, 문화적응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카이검증,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 Ⅲ. 결과분석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연구대상자 122명 중 남자 68명(55.7%), 여자 54명(44.3%)이었으며, 평균연령은 11.44세였다.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은 친구관계와 부모자녀 관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친구관계가 나쁜 편이라고 답한 아동이 3.3%, 부모자녀 관계가 나쁜 편이라고 답한 아동은 5.7%에 불과해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은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어머니 국적은 일본이 48명(39.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 조선족(23명, 18.9%), 중국 한족(13명, 10.7%), 필리핀(10명, 8.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라고 응답한 아동은 14명(11.5%)으로 어머니의 국적은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페루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아동이 가정에서 얼마나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나 언어에 대해 접하고 있는지도 조사하였는데, ‘거의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아동이 50%로 가장 많았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한 아동도 13.1%나 나타났다.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모국문화접근정도는 평균 2.40으로( $SD = .91$ , 매일이야기 한다 5점~전혀 이야기 하지 않는다 1점) 가정에서 어머니 나라의 문화를 별로 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은 잘한다고 응답한 아동이 38.5%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잘한다(36.1%)를 포함하면 아동이 지각하는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 2.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정체감과 문화적응유형

##### 1) 문화정체감 수준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정체감을 살펴본 결과(표 3), 한국문화정체감은 평균 3.91, 외국인 어머니 문화에 대한 모국문화정체감은 평균 2.86으로 한국문화정체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정체감 수준은 성별, 연령, 사회적 관계망(친구관계, 부모자녀관계), 어머니의 국적, 모국문화접근성, 어머니의 한국어실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자아동이 남자아동보다 한국문화정체감과 모국문화정체감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 수준에 따른 문화정체감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친구관계와 부모자녀 관계 수준을 재분류 하였다.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친구관계, 부모자녀관계가 나쁜 편이라고 답한 집단이 10% 미만 소수로 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중립적인 ‘보통이하’ 집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빈도(명)	비율(%)	
성별	남	68	55.7
	여	54	44.3
연령 $M = 11.44$	10세	39	32.0
	11세	21	17.2
	12세	31	25.4
	13세	31	25.4
친구관계	나쁜편이다	4	3.3
	보통이다	46	37.7
	좋은편이다	72	59.0
부모자녀 관계	나쁜편이다	7	5.7
	보통이다	45	36.9
	좋은편이다	70	57.4
어머니국적	일본	48	39.3
	중국(조선족)	23	18.9
	중국(한족)	13	10.7
	베트남	5	4.1
	필리핀	10	8.2
	몽골	4	3.3
	태국	5	4.1
기타 <sup>1)</sup>	14	11.5	
모국문화접근성 $M = 2.40$	전혀 이야기 하지 않는다	16	13.1
	거의 이야기 하지 않는다	61	50.0
	가끔 이야기 한다	25	20.5
	매일 이야기 한다	20	16.4
어머니의 한국어실력 $M = 4.11$	보통이다	31	25.4
	잘한다	47	38.5
	매우 잘한다	44	36.1
전체	122	100.0	

1) 기타 : 카자흐스탄(3), 말레이시아(3), 러시아(2), 우즈베키스탄(2), 캄보디아(2), 인도네시아(1), 페루(1)

단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좋은 편’으로 재분류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친구관계와 부모자녀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아동의 한국문화정체감과 모국문화정체감 수준이 보통이하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문화정체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 할수록 높았으며 어머니

가 조선족인 아동이 가장 높았고, 어머니가 일본인 아동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모국문화정체감은 어머니의 국적이 기타로 분류된 집단에서 가장 높고, 중국 한족 어머니를 둔 아동의 모국문화정체감이 가장 낮았다. 모국문화정체감에서 주목할 점은 어머니 문화에 대해 자주 접할수록 모국문화정체감이 낮았다는 점이다. 모국 문화에 대해 전혀 이야기 하지 않는 아동의 모국

〈표 3〉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한국문화정체감과 모국문화정체감

구분	n	한국문화정체감		모국문화정체감		
		M	SD	M	SD	
전체	122	3.91	.75	2.86	.91	
성별	남	68	3.79	.85	2.62	.79
	여	54	4.06	.59	3.16	.96
		<i>t</i>	-2.07*		-3.39**	
연령	10세	39	3.70 <sup>b</sup>	.74	2.82	.84
	11세	21	3.71 <sup>ab</sup>	.76	2.81	.89
	12세	31	3.99 <sup>ab</sup>	.76	2.91	.89
	13세	31	4.25 <sup>a</sup>	.61	2.90	1.05
		<i>F</i>	4.003**		.088	
친구 관계	보통 이하	50	3.68	.87	2.60	.83
	좋은편	72	4.08	.61	3.04	.92
		<i>t</i>	-2.799**		-2.734**	
부모자녀 관계	보통 이하	52	3.72	.81	2.50	.89
	좋은편	70	4.06	.68	3.13	.68
		<i>t</i>	-2.40*		-4.02***	
어머니 국적	일본	48	3.66 <sup>a</sup>	.79	2.95 <sup>ab</sup>	.86
	조선족	23	4.35 <sup>b</sup>	.46	2.76 <sup>ab</sup>	1.14
	중국(한족)	13	4.10 <sup>ab</sup>	.90	2.24 <sup>a</sup>	.98
	동남아시아	26	3.96 <sup>ab</sup>	.67	2.81 <sup>ab</sup>	.69
	기타	12	3.74 <sup>ab</sup>	.72	3.45 <sup>b</sup>	.57
		<i>F</i>	4.013**		3.177*	
모국 문화 접근성	전혀 하지 않는다	16	3.91	.61	3.46 <sup>c</sup>	.70
	거의 하지 않는다	61	4.01	.63	2.93 <sup>bc</sup>	.86
	가끔 이야기 한다	25	3.88	.81	2.84 <sup>ab</sup>	.87
	매일 이야기 한다	20	3.99	.83	2.20 <sup>a</sup>	.88
		<i>F</i>	.298		6.793***	
어머니 한국어 실력	보통 이하	31	3.68 <sup>a</sup>	.87	2.57	.86
	잘함	47	3.89 <sup>ab</sup>	.74	2.96	.78
	매우 잘함	44	4.11 <sup>b</sup>	.63	2.97	1.04
		<i>F</i>	3.134*		2.184	

\**p* < .05. \*\**p* < .01. \*\*\**p* < .001.

abc 같은 문자는 사후검증 결과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 없음.

문화정체감은 3.46으로 나타난 반면 매일 이야기 하는 아동의 경우 2.2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 위해 어

머니 국적에 따라 어머니의 문화를 접촉하는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표 3), 그 결과 모국문화정체감이 가장 낮았던 중국 한족과

〈표 4〉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유형

구분(N = 122)		한국문화정체감(M = 3.91)	
		고(평균 이상)	저(평균 미만)
모국문화정체감 (M = 2.86)	고(평균 이상)	통합(N = 30) 24.6%	분리(N = 36) 29.5%
	저(평균 미만)	동화(N = 36) 29.5%	주변화(N = 16) 16.4%

조선족 어머니를 둔 아동의 집단이 모국문화를 가장 자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 한족과 조선족 어머니를 둔 아동은 가정에서 모국 문화에 대해 자주 접하지만 모국문화에 대한 정체감 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문화적응유형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문화정체감과 모국문화정체감 수준을 측정 후 각각의 집단 평균을 중심으로 네 유형을 구분하였다. 표 4를 보면,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유형은 한국문화정체감이 높은 동화형과 모국문화정체감이 높은 분리형이 각각 29.5%(36명)로 가장 많았고, 두 문화정체감 모두 집단 평균보다 높은 통합형이 24.6%(30명), 두 문화 모두 정체감을 형성하고 있지 못한 주변화형이 16.4%(16명)로 나타났다.

표 5와 같이,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유형은 아동의 성별, 연령, 친구관계와 부모자녀관계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국적, 모국문화접근성,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아동의 경우 통합형이 가장 많고 주변화형이 가장 적었던 반면 남자아동은 통합형은 가장 적고 동화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 연령집단에서는 모국문화에 대한 정체감이 강한 분리형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

했지만 12세 이상 고연령 집단에서는 두 문화를 잘 조직하고 있는 통합형 또는 한국인으로서 강한 정체감을 지닌 동화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친구관계와 부모자녀 관계에 따른 문화정체감유형의 차이를 살펴보면 그 결과 친구 관계와 부모자녀가 좋은편이라고 응답한 아동집단에서는 통합형이 가장 많았던 반면, 보통이하의 집단에서는 통합형이 가장 적은 유형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서는 일본어머니를 둔 아동의 경우 모국문화정체감이 높은 분리형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동화형이 38.9%로 다른 유형보다 높았다. 어머니의 국적이 베트남이나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아동들의 경우에는 동화와 분리형이 각각 34.6%로 높게 나타났다. 모국문화를 얼마나 자주 접하는 지 모국문화접근성에 따라 문화적응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모든 유형에서 어머니의 모국 문화나 언어에 대해 거의 이야기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이하게도 매일이야기 하는 아동의 경우 두 문화 모두에 소속감과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주변화 형이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한국어실력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한국어를 매우 잘 할 경우 아동의 문화적응유형으로는 통합형이 가장 많은 반면,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이 보통이하인 아동은 동화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표 5〉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유형

구분		빈도(%)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전체		122(100)	30(24.6)	36(29.5)	36(29.5)	20(16.4)
성별	남	68(100)	9(13.2)	23(33.8)	20(29.4)	16(23.5)
	여	54(100)	21(38.9)	13(24.1)	16(29.6)	4( 7.4)
$X^2 = 13.797^{**} df = 3$						
연령	저연령(10-11)	60(100)	9(15.0)	15(25.0)	23(38.3)	13(21.7)
	고연령(12-13)	62(100)	21(33.9)	21(33.9)	13(20.9)	7(11.3)
$X^2 = 19.596^* df = 9$						
친구 관계	보통이하	50(100)	5(10.0)	15(30.0)	15(30.0)	15(30.0)
	좋은편이다	72(100)	25(34.7)	21(29.2)	21(29.2)	5( 6.9)
$X^2 = 28.026^{***} df = 6$						
부모자녀 관계	보통이하	52(100)	3( 5.8)	21(40.3)	17(32.7)	10(19.2)
	좋은편이다	70(100)	27(38.6)	14(20.0)	19(27.1)	10(14.3)
$X^2 = 22.426^{***} df = 6$						
어머니 국적	일본	48(100)	6(12.5)	11(22.9)	20(41.7)	11(22.9)
	중국	36(100)	13(36.1)	14(38.9)	1( 2.8)	8(22.2)
	동남아시아	26(100)	7(26.9)	9(34.6)	9(34.6)	1( 3.8)
	기타	12(100)	4(33.3)	2(16.7)	6(50.0)	0( 0.0)
$X^2 = 27.423^{***} df = 9$						
모국문화 접촉정도	전혀 하지 않는다	16(100.0)	9(56.2)	2(12.5)	5(31.3)	0( 0.0)
	거의 하지 않는다	61(100.0)	10(16.4)	18(29.5)	21(34.4)	12(19.7)
	가끔 이야기 한다	25(100.0)	7(28.0)	10(40.0)	8(32.0)	0( 0.0)
	매일 이야기 한다	20(100.0)	4(20.0)	6(30.0)	2(10.0)	8(40.0)
$X^2 = 28.049^{***} df = 9$						
어머니 한국어실력	보통이다	31(100.0)	4(12.9)	12(38.7)	9(29.0)	6(19.4)
	잘한다	47(100.0)	12(25.5)	13(27.7)	19(40.4)	3( 6.4)
	매우 잘한다	44(100.0)	14(31.8)	11(25.0)	8(18.2)	11(25.0)
$X^2 = 13.13797^{**} df = 3$						

\* $p < .05$ . \*\* $p < .01$ . \*\*\* $p < .001$ .

abc 같은 문자는 사후검증 결과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 없음.

조사되었다(표 5 참조).

### 3.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파악하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위축, 우울·불안을 측정하였다. 즉,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고 위축, 우

울·불안이 낮을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 아동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수준을 살펴보면 아래 표 6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여자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남자아동보다 높았으며, 친구관계와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 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축은

〈표 6〉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구분	n	자아존중감		위축		우울·불안		
		M	SD	M	SD	M	SD	
전체	122	29.33	4.72	50.00	5.58	50.00	4.67	
성별	남	68	27.97	4.86	50.99	5.37	50.16	5.37
	여	54	31.05	3.95	48.74	5.64	48.75	5.64
	t		-3.77***		2.24*		.42	
연령	저연령(10-11)	60	29.15	4.83	49.59	5.52	50.29	4.39
	고연령(12-13)	62	29.51	4.65	50.39	5.66	49.72	4.95
	t		-.426		-.791		.665	
친구 관계	보통 이하	50	27.92	5.13	52.68	5.47	51.64	4.54
	좋은편	72	30.31	4.18	48.14	4.90	48.86	4.45
	t		-2.838**		4.798***		3.373**	
부모자녀 관계	보통 이하	52	27.09	4.47	51.56	5.70	51.61	4.33
	좋은편	70	31.00	4.22	48.84	5.20	48.81	4.59
	t		-4.928***		2.733**		3.413	
어머니 국적	일본	48	28.64	5.68	49.87	5.48	50.14	4.63
	중국	36	29.63	3.92	50.77	6.06	49.58	4.16
	동남아시아	26	29.42	4.35	50.55	5.30	51.23	4.97
	기타	12	31.00	3.16	46.99	4.58	48.01	5.37
	F		.887		1.500		1.453	
한국어 실력	보통	33	28.85 <sup>ab</sup>	4.39	50.06 <sup>ab</sup>	5.71	49.68	4.23
	잘함	47	27.53 <sup>b</sup>	4.79	51.46 <sup>b</sup>	5.03	51.06	4.69
	매우 잘함	42	31.74 <sup>a</sup>	3.90	48.32 <sup>a</sup>	5.73	49.06	4.85
	F		10.438***		3.662*		2.167	

\* $p < .05$ . \*\* $p < .01$ . \*\*\* $p < .001$ .

abc 같은 문자는 사후검증 결과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 없음.

남자아동이 여자아동보다 높았으며, 친구와 부모자녀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우울·불안 수준은 친구관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친구관계가 좋지 못한 아동의 경우 우울·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 4.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유형과 심리사회적 적응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심

리사회적 적응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7 참조). 두 문화를 조화롭게 유지하고 있는 통합형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31.46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두 문화 모두에 소속감을 느끼고 있지 못한 주변화형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26.7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F = 4.650, p < .01$ ). 심리사회 부적응 측면인 위축과 우울·불안은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통합형 아동의 우울·불안 수준이 가장 낮은

〈표 7〉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유형별 심리사회적 적응 차이

구분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i>F</i>	<i>p</i>	
전체	122	30	36	36	20		
자아존중감	29.33	31.46 <sup>a</sup>	28.83 <sup>ab</sup>	29.52 <sup>ab</sup>	26.70 <sup>b</sup>	4.650**	.004
<i>SD</i>	4.72	3.69	4.65	4.74	4.99		
위축	50.00	48.14	50.78	50.46	50.55	1.505	.217
<i>SD</i>	5.58	5.01	5.88	5.60	5.62		
우울·불안	50.00	48.29	50.18	50.57	51.21	2.026	.114
<i>SD</i>	4.67	4.51	4.62	4.57	4.85		

\* $p < .05$ . \*\* $p < .01$ . \*\*\* $p < .001$ .

abc 같은 문자는 사후검증 결과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 없음.

것으로 나타났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한국문화에 대한 정체감과 외국인 어머니문화에 대한 정체감 수준을 살펴보고, 아동들이 두 문화에 대한 정체감을 어떻게 통합하고 있는지에 따라 문화적응유형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이러한 문화적응유형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정체감은 한국문화정체감(평균 3.91)이 외국인어머니문화에 대한 모국문화정체감(평균 2.86)보다 높았으며, 여자아동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한국문화정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정체성 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정체성 발달의 성차를 주장해 왔으며, 특히 여성의 정체성은 사회적 관계망과 친밀성 등 사회적 요인을 더 많이 반영한다(Archer, 1985). 집단정체감의 일부인 문화정체감은 주변 구성원들과의 공유와 소속감 등 사회

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데 남자아이에 비해 여자아동은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 민감하고 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화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남녀 간 성차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족문화정체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문화정체성은 단계를 거쳐 발달한다(Phinney, 2005). 첫 단계는 아직 인종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단계로 자신의 인종적 뿌리는 물론 다름과 차이에 관심이 없고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 않은 단계이다. 다음은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기 시작하고 특히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와 전통, 인종적 유산에 관심을 갖는 단계로 연령상 청소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은 인종적 차원에서 자아개념이 분명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단계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기 초기는 아직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형성되지 않은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속집단의 문화와 전통, 인종적 유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문화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국적별로는 조선족 어머니를 둔 아동의 한국문화정체감은 높았던 반면, 어머니가 일본인인 아동의 한국문화정체감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조선족인 경우 언어나 외모에서 한국인과 차이가 없고, 특히 조선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동포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명자 외(2004)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 자녀들이 인지하는 정체감과 소속감에 차이를 보였다. 금명자 외(200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국적이 아시아권인지 비아시아권인지에 따라 자녀들이 자신을 인지하는 것에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가 아시아계인 청소년의 60%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비아시아계인 경우 21.4%만이 한국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아시아권이라 할지라도 일본, 중국, 조선족 등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 자녀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어머니의 국적에 따른 문화정체감의 차이에 대해서는 문화정체감을 이루는 하위 요인과 연관 지어서 추론해 볼 수 있다. 민족문화정체감은 대체로 인종중심성, 사적관심도, 공적관심도 세 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심우엽, 2009; Caldwell, Zimmerman, Bernat, Sellers, & Notaro, 2002; Chavous, Bernat, Schmeelk-Cone, Caldwell, Kohn-Wood, & Zimmerman, 2003). 이중 인종중심성은 자신을 설명할 때 나와 같은 인종의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 가를 말한다. 사적관심도는 자신이 속한 인종을 자랑스럽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이 거기에 속한 것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공적 관심도는 남들이 내가 속한 인종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느냐 즉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가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민족문화정체감을 형성한다. 같은 아시아계인 조선족과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한국문화정체감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 데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조선족 어머니를 둔 아동의 경우 아동이 스스로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인종중심성, 사적관심도) 한국사회 인식이 조선족은 우리 동포이고 한국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공적 관심도) 한국문화에 대한 정체감이 다른 국적에 비해 높은 반면, 일본인 어머니를 둔 아동의 경우 일본인에 대한 스스로의 자부심과 일본문화에 대한 주변의 긍정적 시선이 아동으로 하여금 한국문화에 대한 정체감은 낮은 반면 일본인으로써의 강한 정체감을 형성하게 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문화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수록 한국문화정체감과 모국문화정체감 모두 높게 형성한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결혼가정 아동들은 부모 및 또래와의 동일시나 공유감을 통해 자신의 민족이나 문화적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고 문화정체감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문화에 대한 정체감뿐만 아니라 모국문화에 대한 정체감 형성에서도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지면서 다문화적 특성이 또래사이에서 긍정적인 관심으로 작용할 때 국제결혼가정 아동은 모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모국문화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정체감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중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아동이 가정에서 모국문화에 대해 자주 접할수록 아동의 모국문화정체감 수준이 낮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모국 문화를 자주 접할수록 모국문화정체감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모국문화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모국 문화를 얼마나 자주 많이 접하느냐의 빈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접하는가의 모국 문화의 내용과 질이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문화정체감은 아동이 어머니의 문화를 자주 접하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동의 개인적인 특성과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를 다루는 가족 내 상호작용 등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문화정체감 발달은 개인, 가족,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한국문화정체감과 모국문화정체감 각각의 집단 평균을 기준으로 문화적응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동화형과 분리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통합형, 주변화형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 살펴보면, 일본인 어머니를 둔 아동의 경우 분리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 반면 조선족과 베트남과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어머니를 둔 아동은 동화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 아동의 문화수용과 정체감 형성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어머니의 국적에 따른 아동의 문화적응 유형은 사회정체감 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Tajfel(1982)는 사회정체감 이론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이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자아존중감을 지키고 적응하는 방식을 설명해 준다(정진경·양계민, 2004).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으며 소외된

집단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을 떠나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주류 집단으로 옮겨가는 것, 즉 약자인 동남아시아 문화를 버리고 다수인 한국인으로 동화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소속감과 안정감을 찾으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모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선호할수록 동화반응은 약할 수 있는데(Berry et al, 1989) 일본인 어머니를 둔 아동의 경우 동남아시아 아동들에 비해 비교적 일본문화와 언어에 자주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강하게 형성하고 분리형의 적응전략을 선택할 수 있으나, 동남아시아 어머니를 둔 아동은 언어와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동화형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적응유형은 성별,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아동의 경우 통합형이 많았던 반면, 남자아동에서는 동화형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도 연령이 높을수록 통합형의 비율이 높았지만 저연령에서는 동화형과 분리형이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한다. 류지영(2005)은 민족적, 문화적 정체감은 나이에 따라 연속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욱 성숙해지고 통합되어 간다고 하였으며, 윤인진과 채정민(2007)은 문화정체감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여성일수록 원래 가지고 있던 정체감에 새로운 주류사회의 정체감이 부가될 수 있는 형태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남성일수록 그 반대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셋째,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에 따라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를 보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적응문제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행연



구들(류지영, 2005; 윤인진·채정민, 2007)에서는 이주민 1세대 보다 그들의 자녀인 2세대들이 주류사회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적응이 빠르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양상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부모자녀 간 가장 큰 문제로 언어 문제로 인한 의사소통의 장애와 문화적 공감대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역시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이 낮고 그 수준에 있어 자녀와의 격차가 점점 커질수록 부모자녀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느끼며 이러한 어려움은 아동의 정체성 형성과 심리사회적 적응을 방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두 문화정체감을 고루 형성한 통합형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고 두 문화 모두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주변화형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 문화에 동화할수록 적응양상이 뛰어나다고 주장한 초기 학자들(Gordon, 1964)의 문화적응에 대한 이론과는 대치되는 한편, 통합적인 최근의 이차원적 관점과는 일관되는 결과이다. 이차원적 관점의 대표적인 예는 Berry(1997)의 문화적응이론과 Castro(200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차원적 관점에서 문화적응은 주류사회와 소수집단 모두에게서 일어나는 변화이며, 특히 이주민들은 주류사회에 적응하면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동화가 아닌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문화의 정체성과 통합된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보았다(Sam & Berry, 1995). 이러한 관점에서는 동화형을 가진 이주자 보다 통합형을 가진 이주자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더욱 적합함을 주장한다. 본 연구 결과는 두 개의 문화정체감이 통합된 아동이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같은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국제결혼가정 아동이 두 문화정체감을 통합하여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더 적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아동들은 어느 한쪽의 문화정체감만을 선택하고 고수하는 것보다 부모의 두 문화에 대한 정체감을 고르게 형성하고 이를 균형 있게 발달시킬 때 자신의 가치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생각함으로써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긍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들이 통합적인 문화정체감을 형성하고 심리사회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가정 아동들이 어머니 나라와 문화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모국문화에 대한 정체감 수준은 한국문화정체감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고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처럼 부모의 두 문화정체감을 통합하고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졌으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모국문화에 대한 정체감을 향상시키고 모국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과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외국인 어머니의 적응과 부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의 한

국어교실이나 아동방문양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비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가정과 일반가정 결연 맺기 등 지역사회 지지 자원을 활용하여 한국사회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주 여성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결혼가정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기술 교육이나 관계형성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 또래관계 속에서 친구지지는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정체감 형성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혼가정 아동들에게 또래지지는 이중문화배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일반아동과 다문화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아동의 다문화감수성을 증진시키고 국제결혼가정 아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연구 대상자의 표집방법에 있어서 임의표집을 사용한 점을 들 수 있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확률표집이 가장 적합하나 전국의 국제결혼가정 아동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임의표집을 사용하였다. 또한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정체감을 측정하는 도구에 있어서 한계점이 지적될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이중문화정체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본 연구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청소년의 민족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서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정체감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며, 대상에 따른 문화정체감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정체감을 다룬 국내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이중문화정체감과 심리사회적 적응수준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문화적응유형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정체감 형성이 인구사회학적, 다문화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문화적응유형에 따라서도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 참 고 문 헌

- 권복순·차보현(2006). 농촌지역 코시안가정주부의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8(3), 109-134.
- 금명자·권혜수·이희우(2004). 탈북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16(2), 295-308.
- 금명자·이영선·김수리·손재환·이현숙(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 : 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상담원.
- 김민정(2008). 국제결혼가족과 자녀의 성장 : 여러 종류의 한국인 가족으로 살아가기. **한국문화인류학**, 41(1), 51-89.
- 김현실(2006). 문화정체성, 문화변용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 캐나다 소수민족 이민청소년을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15(4), 384-391.
- 김효정(2009). 한국이주 남아시아 남성 무슬림 근로자의 문화적응모델연구 : 혼인을 통한 문화정체성 형성의 패턴을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 : 한 국이슬람학회 논총**, 19(2), 113-137.

- 노충래 · 홍진주(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 실태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 류지영(2005). 재미한인 영재 청소년의 민족적 정체감 형성. **청소년학연구**, 12(1), 347-369.
- 박순희(2009). 다문화가족아동의 특성과 사회적응. **한국아동복지학**, 29, 125-154.
- 박주희 · 정진경(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12(4), 395-432.
- 심우엽(2009). 다문화 학생의 민족정체성 및 정서적 특성. **초등교육연구**, 22(4), 22-47.
- 신지혜(2008). 국제결혼이주여성 자녀와 일반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경자 · 이해련 · 홍강의 · 하은혜(1997).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중앙적성연구소.
- 오성배(2005). 코시안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윤인진 · 채정민(2007). **북미의 한민족 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소희 · 최운선(2008).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문화정체감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3), 163-185.
- 이영주(2007). 국제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2(2), 83-105.
- 정진경 · 양계민(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23, 101-136.
- 정현영(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과 한국남성의 이중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채정민 · 김종남(2004). 북한이탈주민의 상대적박탈감과 심리적 적응 : 개인적 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8(1), 41-63.
- 최선화(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내재화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대전, 충남 · 북지역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진주(2004).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행정안전부(2010). 「외국인주민실태조사」.
- Achenbach, T.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 University Of Vermont Depart Of Psychiatry.
- Ahn, H. (1999). *Juggling Two World : Ethnic Identity Of Korean-American College Students*. 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Archer, S. L. (1985). Identity and choice of social roles. In A. S. Waterman (Eed.), *Identity in adolescence : precesses and contens (New direction for child development, NO. 30)*. San Francisco : Jossey-Bass.
- Berry, J. W. (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 In Brislin, R. (Eds.),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232-253. Newbury park, CA : Sage.
- Berry, J. W. (1995). Psychology Of Acculturation. In N.R., Goldberg, & Jb Veroff (Eds.), *The Culture & Psychology Reader*, 457-488.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sychology :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 Castro, V. S. (2003). *Acculturational and Psychological Adaption*. Wesport, Co : Greanwood.
- Caldwell, C. H., Zimmerman, M. A., Bernat, D.H., Sellers, R. M., & Notaro, P. C. (2002). Racial Identity, Matern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73(4), 1322-1336.
- Chavous, T. M., Bernat, D. H., Schmeelk-Cone, K., Caldwell, C. H., Kohn-Wood, L., & Zimmerman, M. A. (2003). Racial Identity and Academic Attainment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74(4), 1076-1090.
- Cho, B., Han, S., & Lee, J. (2005). A Study on Korean-Chiness children's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to the mainstream society. *International Journal*

- of Human Ecology*, 6, 87-102.
- Ensel, Walter M., & Nan Lin. (1991). the Life Stress Paradigm and 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321-341.
- Gordon, M.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N Y : Oxford University Press.
- Grossman, B., Wite, T., & Davids, A. (1985). Self-esteem, ethnic identity, and behavioral adjustment among Anglo and Chicano adolescents in West Texas. *Journal of Adolescence*, 8, 57-68.
- Kail, R. V. (2007). *Children and Their Development (4th)*. N.J : Prentice-Hall.
- Kim, S. (1994). *Ethnic Identity, Attribute Factors, and Self Esteem Among Korean American College and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mory University.
- Lafrombois, T., Coleman, H. I. K., & Gerton, J. (1993). Psychological Impact Of Biculturalism :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14, 395-412.
- Lynch, E. W. (1992). From culture shock to cultural learning. IN E. W. Lynch & M. J. Hanson (eds.), *Developing cross-cultural competence : A guide for working with young children and their families*, 19-33. Baltimore, Maryland : Paul H Brookes.
- Mcloyd, V. 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s And Child Development. *Am Psychol*, 53, 185-203.
- Phinney, J. S., & Charvira, V. (1992). Ethnic Identity And Self-Esteem : An Exploratory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15, 271-281.
- Phinney, J. S., Cantu, C., & Kurtz, D. (1997). Ethnic and American identity as predictors of self-esteem among African American, Latino, and White adolescents. *J Youth Adolesce*, 26, 165-185.
- Rog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m, D. L., & Berry, J. W. (1995). Acculturative Stress And Young Immigrants In Norwar.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36, 10-24.
- Thomas, M., & Choi, J. B. (2006).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among Korean and Indian immigrant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ociology & Social Welfare*, 33, 123-143.
- Ward, C., & Rana-Deuba, A. (1999). Acculturation and adaption revisited.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0, 422-442.

---

2011년 5월 1일 투고, 2011년 7월 22일 수정  
2011년 7월 28일 채택